

韓·日 과학사세미나 주도한 세계적 석학

야부우치 기요시 (藪内清 : 1906~2000년)

수내청(藪内清 : 야부우치 기요시, 1906~2000년)은 일본의 대표적 과학사 학자다. 특히 그는 중국 과학사의 연구와 교육에 평생을 바쳐 세계적인 명성을 이룩한 학자였다. 그가 지난 6월 2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름을 아는 한국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세계 과학사 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영국의 조셉 니덤 다음쯤으로 유명하다.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란 대질(大帙)의 책으로 한꺼번에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게 된 서양의 조셉 니덤(1900~1996년)이 훨씬 더 유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차게 중국 천문학사를 연구하여 정리하고, 또 중국 과학사 학자들을 여럿 길러낸 공헌으로 치자면 그는 결코 니덤 못지 않은 학자였다.

추모회 초청받고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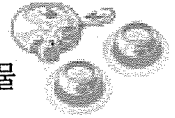
그가 지난 6월 2일 일본 경도(京都: 교토)의 자택에서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추모회가 7월 23일(일) 오후 경도회관에서 열렸다. 그의 제자들의 초청을 받고 나는 일부러 바다를 건너 그 자리에 참석해, 갑자기 간단한 인사 연설까지 하게 되기도 했다. 외국에서 일부러 와 준 손님은 나 밖에 없던 셈이어서 특별히 인사를 요청받았던 때문이다. 외국 손님은 나 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상운(全相運)교수도 부인과 함께 참석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전교수는 그의 제자이니 그 자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내가 인

사말에서 말했듯이 고인은 아마 “박교수는 어떻게 거기 와 있는가?” 하며 조금 의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잘 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비록 바쁜 여름방학 기간에 사흘 이상 시간을 소비했고, 노자 돈도 적지 않게 썼지만, 세계적인 학자를 마지막 보내는 행사에 그렇게라도 참석했던 것이 잘 한 일 같다. 1995년 봄 영국에서 니덤이 작고했을 때도 초청을 받았지만, 영국 케임브리지까지 다녀오기에는 시간과 경비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포기한 일이 있다. 그 때 기억이 이번에는 쉽게 그 자리에 나를 달려가게 해 준 것도 같다.

원래 그는 1929년 경도대학 우주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 계속 모교에 남아 천문학사를 연구했다.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그의 동기생들은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니, 바로 탕천수수(湯川秀樹 : 유가와 히데키, 1949년 수상, 1907~1981년)와 조영진일랑(朝永振一郎 : 도모나가 신이치로, 1965년 수상, 1906~1979년)이 그들이다.

그가 중국천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에 앞서 여러 학자들이 그 방면 연구에 좋은 업적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성신장(新城新藏)이니 능전중량(能田重亮)이니 반도충웅(飯島忠雄)이니 하는 학자들이 그런 중국천문학사의 선배학자들이다. 말하자면 수내청교수는 그들 선배학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셈이다. 또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어지간한 관심은 있어서 1981년 시작하여 두 나



야부우치 기요시(藪内清)는 일본의 대표적 과학사 학자로 중국 과학사 연구와 교육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 석학이다. 지난 6월 2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는 한국에도 어지간히 관심을 가져 두나라를 오가며 여러 차례 계속된 한·일 세미나에는 꼭 참석하고 강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의 책 가운데 「중국의 과학문명」, 「중국의 수학」, 「중국의 천문학」 등 세가지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많이 읽히고 있다.

리를 오가며 여러 차례 계속된 '韓日과학사세미나'에는 꼭 참석하고 강연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책 가운데에는 「중국의 과학문명」(全相運 역), 「중국의 수학」(朴世熙 역), 「중국의 천문학」(兪景老 편역) 등 세가지만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많이 읽히고 있기도 하다. 그의 저술 가운데 비교적 대중적인 책들만이 번역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공헌은 중국 천문역산학의 역사를 깊이있게 연구해 밝힌 것에 있고, 그 방면의 연구서로는 보다 폭넓은 것으로 「중국의 천문역법」을 비롯하여 「수당(隋唐) 역법사의 연구」 등이 있고, 제자들과 함께 낸 연구서로 「천공개물(天工開物)의 연구」 「중국 중세과학기술사의 연구」 「송원(宋元)시대의 과학기술사」 「명청(明清)시대의 과학기술사」 등도 있다. 이런 보다 깊이있는 저작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된 일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과학사 연구 수준이 이런 작품을 읽을만한 대학원생층이 너무 적은 탓이라 할 수 있다.

수내청은 일생 동안 주로 학문 연구를 한 편이지만, 보다 대중적인 역할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추모회에서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미야지마(宮島一彦)가 수내청교수의 일대기를 영상을 모아 소개했는데,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는 70년대 후반에 교양 강좌를 맡아 방송한 일도 있어서, 바로 그 방송을 교재로 낸 것이 1979년에 나온 「중국과학기술사」라는 방송교재인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여러 차례 방송에도 출연하여 고대 천문도에 대해 해설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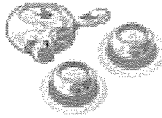
제자 전상운교수의 회고

그는 한국 과학기술에 대해 특히 조예가 깊거나 직접 연구를 한 일은 없다. 아마 그가 한국과학사에 관심을 갖게된 경위는 우리나라의 전상운교수가 그의 제자로 경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것으로, 그래서 전상운교수에게는 많은 추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추억 가운데 한 대목을 전교수는 그의 최신작 「한국과학사」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제5장 고대 일본과 한국 과학’ (p. 349~391)에 있는 〈일본으로 간 백제의 박사들〉이란 글 가운데에 이런 대목이 보인다.

“일본의 옛 서울들인 교토(京都)와 나라(奈良)를 잇는 전철은 나와는 인연깊은 철도다. . . . 교토와 나라의 유적을 찾아 아내와 수없이 다니던 철길이 었기 때문이다. 1993년에는 제7회 국제동아시아 과학사회의가 거기서 열렸고, 필자는 그때 ‘동아시아의 경험 안에서의 과학기술’이라는 특별 공개강연을 했다.”

“그 철도를 달리는 급행이 서는 전철역에 고우리(高尾)아마라는 조금은 낮은 고올이 있다. 한자로 郡山이라고 쓴다. 그 지역에서는 郡자를 일본의 흔한 발음인 gun으로 읽지 않고 kouri라고 읽는다. 우



리말의 고을이다. 옛날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전문가 집단이 정착했던 곳의 하나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1960년대 말에 필자를 처음 그 곳에 안내해 준 필자의 스승인 야부우치(藪内清)교수의 설명이었다. . . .”(p. 375) 전교수를 직접 안내도 하면서 한일 고대 과학기술의 교류에 대한 자상한 설명을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홍대용 지전설’에 관심

하지만 내가 수내청교수를 알게된 동기는 조금은 이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유학 중이던 때의 일이다. 아마 1970년쯤 「조선학보」(朝鮮學報)라는 일본에서 나오는 학술지에 실린 그의 논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68년 10월 발행된 잡지 49호에는 그의 논문 ‘이조(李朝)학자의 지전설’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 글을 읽고 나는 불만이 많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과학사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던 나는 홍대용(洪大容 1731~1783년)의 지전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대해 수내청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글에서 1760년대에 홍대용이 주장한 지구자전설은 당시 중국에 와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이 그에게 전해준 서양 천문학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1765~66년 북경을 방문했던 홍대용이 누군가 서양 선교사를 만나 지전설을 듣고 그런 주장을 썼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가 수내청교수의 이런 주장에 간단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내용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막상 홍대용의 글 자체를 전혀 읽지 않고 이 글을 썼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그 논문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대용에게는 적지 않은 글이 남아 있고, 이를 모아 「담헌서」(澹軒書)라는 문집으로 일제 시기에 서울에서 간행된 일도 있다. 그리고 이 문집은 당시에는 이미 경도대학 도서관

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수내청교수도 구해 보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그런데 수내청교수는 이 논문을 쓰면서 이 문집조차 읽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문집 안에는 북경에서 홍대용이 4차례나 서양 선교사를 찾아가 만났다는 사실이 들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전설을 말할 계제는 못되었다는 사실은 글을 읽어나가다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겨우 필담(筆談)을 통해 아주 초보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금방 이 문집에서 밝혀지기 때문이다. 홍대용은 서양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깊이있는 대화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홍대용이 그의 지전설을 독창으로 주장하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 당시 중국에 나와있던 책들 가운데에는 이미 서양의 지전설을 소개한 것이 있었고, 홍대용은 그 책을 읽고 지전설을 옳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의 지전설이 완전한 그의 독창이 아니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막상 홍대용의 글은 읽지 않고 논문을 쓴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뒤에 생각해 보니, 사실은 이 논문도 그로서는 본격적 연구라기 보다는 전상운교수를 제자로 받아들 이면서 조금 알게된 한국 과학사에 대해 무언가 써 보고 싶은 생각에서 나온 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그가 이를 계기로 한국 과학사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내청교수는 ‘한일 과학사세미나’를 적극 추진했고, 또 나름대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과학사적 관련성에 대해 생각도 하고, 발표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에서는 그의 불만족스런 논문 ‘이조학자의 지전설’은 수내청교수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게 된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글이란 판단을 하 게 도 된다. ①7

朴 星 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